

유치진의 <흑룡강> - '민족협화' 및 그 균열의 의미*

이복실**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인과 만·몽 소수민족의 '협화'적 공존
3. 조선인과 중국인의 협화·비협화적 공존
4. 타자화 된 제국 일본
5. 체화하지 못한 식민 논리 - '민족협화'

[국문초록]

유치진의 <흑룡강>은 조선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협력 하에 '만주국'이 탄생되는 과정을 그렸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일본 등 다양한 민족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민족협화'를 고취하고자 했다. 작품 속 조선인은 한족의 계층과 신분 - 지주, 농민, 상인, 동북군 등 - 에 따라 그들과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만주족, 몽고족 및 일본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은 바로 <흑룡강>의 이러한 민족 관계와 각 민족 간 상호 인식에 주목하여 유치진이 의도했던 '민족협화'의 균열을 포착함과 동시에 그 균열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흑룡강>은 재만 조선인을 만주 개척 및 '만주국' 건국의 공로자로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이 만주/만주국에서 충분히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이른바 재만 조선인의 정당한 생존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방법인즉 일제의 정치이념인 '민족협화', 나아가 '대동아공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만주국' 다수의 민족인 한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작품은 또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만 조선인들이 만주 개척 및 '건국 협력'을 근거로 생존권을 주장할 것을 강조한 한편 일본을 경계할 것을 암시했다. 한마디로 유치진이 <흑룡강>을 통해 체현하고 있는 '민족협화'는 조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협화'로

* 이 저서 또는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연구원

귀결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치진(〈흑룡강〉)이 어디까지나 ‘만주국’ 및 ‘대동아 건설의 이상’이라는 일제의 식민논리 속에서 재만 조선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흑룡강〉의 ‘민족협화’는 일정한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만주국’ 건국 9년 뒤인 1941년에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균열은 곧 ‘만주국’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즉 ‘만주국’의 허상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셈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논리에 부풀었던 유치진의 이상이 국민연극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괴리감과 같은 것이었다. 이 모든 균열이나 괴리감은 결국 유치진이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 조선인 또는 재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일제의 식민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환언하자면 일제의 식민논리를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채, 국민연극을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유치진, 흑룡강, 만주, 민족협화, 대동아공영

1. 들어가며

해방 전, 동랑 유치진은 극예술연구회와 현대극장을 통해 극작가 겸 연출가로 활약하면서 한국 근대연극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해방 후에도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며 극작가로서의 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극예술협회를 창립(1946)하고 드라마센터를 건립(1962)하며 연극 교육 사업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 현대극장을 통해 전개했던 일련의 친일 연극 활동은 일생동안 쌓아온 그의 연극 업적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즉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친일인명대사전』에 오르게 된 것인데, 〈흑룡강〉은 바로 그 불명예에 씨앗을 뿌린 작품이었다.

〈흑룡강〉은 현대극장의 창립공연작이다. 이 단체는 1941년 3월, “國家理念을 演劇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純化된 演劇文化를 國民大眾에게 普及시키자”는 이른바 “國民演劇樹立을 目標로”¹⁾ 출범한 신극 극단이었다. 한마디로 현대극장은 대중적인 연극을 통해 일제의 국책을 선전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단체였다. 〈흑룡강〉은 현대극장의 이러한 국책 성격을 체현한 첫 작품으로 같은 해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경성 부민관에서 공연되었다.

1) 鹹大勳, 「國民演劇의 첫 烽火 - 劇團現代劇場創立에 際하여」(上), 『매일신보』, 1941.3.3, 4쪽.

이 공연은 국민총동원이 가동되던 시기에 '새로운 신극' 수립을 목표로 상정한 첫 무대였던 만큼 일제 식민당국과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²⁾ 김사량은 “스케일과 전개에 있어서 능히 셰익스피어 무대를 연상하는 정도”³⁾라고 극찬했으며 극작가 박영호는 “작자의 의도처럼 선이 두껍고 힘차며 다이내믹한 작품”으로 “서양화적인 스타일을 이루고 있다”⁴⁾며 호평했다. 이들의 호평과 상응하는 자료로 당시의 관객 수를 꼽을 수 있다. <흑룡강>은 3일 동안 5회 공연하여 총 10,061명의 관객을 동원⁵⁾함으로써 회당 평균 2,012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부민관의 대극장 수용 인원(정원)이 1,800명⁶⁾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만원의 대성공을 거둔 공연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극 담론과 <흑룡강>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및 기존의 극예술연구회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현대극장/유치진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가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성공적인 첫 공연을 시작으로 <흑룡강>은 현대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여 1942년까지 조선은 물론 만주, 상해까지 진출했다. <흑룡강>은 1942년 3월에 상해문화동호회에 의해 '상해제일가무기좌(上海第一歌舞伎座)'에서 공연⁷⁾되었고 1941년 12월에는 '극단만주(劇團滿洲)'에 의해 하얼빈을 비롯한 북만 지역에서 순회공연 된 바 있다.⁸⁾ 이처럼 <흑룡강>이

-
- 2) 당시 총독부 사무관 星出壽雄, 국민총력연맹 문화부장 矢鏑三郎 등 일본 관리들과 김사량, 이광수, 박영희, 박영호 등 조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매일신보』와 『삼천리』 등을 통해 <흑룡강>에 대한 관극 소감을 밝혔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재명, 『일제 말 친일 목적극의 형성과 전개』, 소명출판, 2011, 91~93쪽 참조 바람.
- 3) 김사량, 「<흑룡강>을 보고 - 현대극장 창립공연평」, 『매일신보』, 1941.6.10.
- 4) 박영호, 「<흑룡강>의 인상① - 현대극장 창립공연평」, 『매일신보』, 1941.6.11.
- 5) 이재명, 앞의 책, 93~95쪽 참조 (이재명은 1941년 7월 『삼천리』에 실린 <흑룡강> 공연보고에 관련된 관객수와 수치표를 상세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본고는 그 자료를 참조했다.)
- 6)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24쪽. 이 글의 같은 면에 의하면 정원 1800명 규모의 부민관 대극당은 행사 당 몇 천 명의 관람자를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소극장에 비해 관람 규모를 확대시켰다.
- 7) 「문화운동의 봉화, 본사 상해지국 후원 하 공연 - 상해문화동호회 유치진 작 흑룡강 공연」, 『만선일보』, 1942.3.8. 그 밖에 『삼천리』 1941년 9월호에 실린 글에 따르면 상해극예술연구회에서든 제 1회 공연작 <父歸る>(菊池寛 作)에 이어 유치진의 <흑룡강>을 공연할 예정이었다. (「上海에 朝鮮人으로 組織된 「上海劇藝術研究會」創立」, 『삼천리』 1941년 9월호)
- 8) 「劇團「滿洲」地方公演 마치고 歸京」, 『만선일보』, 1941.12.9, 3쪽.

국경 안팎의 무대를 주름잡았던 이유는 이 작품이 “만주건국에의 이념을 주제로 하여 民族相克에서 民族協和로 發展되는 大東亞建設의 國家理想의一端을 구상화”⁹⁾함과 동시에 “활극적·멜로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대중성을 추구”¹⁰⁾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즉 국책성과 오락성이 적절히 배합된 작품으로 일정한 시대적·예술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룡강>은 작품이 공개되지 않아¹¹⁾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유치진의 기타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 <흑룡강>의 공연대본은 2004년에 비공식적이거나 『해방 전 공연회곡집』에 별쇄본 형태로 묶여 출판되면서 비로소 <흑룡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흑룡강>의 창작배경과 국책성 및 대중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이상우는 <흑룡강>을 ‘민족협화’와 동아건설이라는 국책성을 역동적이고도 감상적으로 구현한 ‘만주 개척극’¹²⁾이라 평가했다. 또한 문경연은 <흑룡강>의 ‘창작과 공연 및 후기 등 모든 과정이 철저히 기획된 전형적인 국책극’¹³⁾으로, 백승숙은 <흑룡강>이 ‘친일을 표방하면서 조선인들의 삶을 옹호하고 우선시한 작품’¹⁴⁾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흑룡강>의 선전 기법과 인물형상을 연구한 논문으로 김재석과 이재명의 논문¹⁵⁾이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흑룡강>의 민족 문제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만주국’ 건국 과정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조선인을 비롯하여 한족, 만주족, 몽고족 등 다양한 민족이 등장하는데,

9) 유치진, 「國民演劇의 具象化 문제 - 黑龍江 上演에 際하여」, 『매일신보』, 1941.6.5, 4쪽.

10) 이상우, 「일제 말기 유치진의 만주 체험과 친일극」, 『근대극의 풍경』, 연극과 인간, 2004, 160쪽.

11) 2004년에 일제 말기 국민연극 작품 다수를 수록한 선집이 출간된 지금까지도 <흑룡강>은 유족의 반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평민사에서 출판한 『해방 전 공연회곡집』의 별쇄본 형태로, 비공식적으로나마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별쇄본 <흑룡강>을 참고하기로 한다.

12) 이상우, 위의 글, 170쪽.

13) 문경연, 「1940년대 국민연극과 친일협력의 논리: 유치진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29, 한국드라마학회, 2008, 69쪽.

14)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5) 김재석, 「<흑룡강>에 나타난 계몽선전의 기법과 작가적 의미」, 『한국연극학의 위상』, 태학사, 2002. 이재명, 「유치진 희곡의 인물형상화 연구 - 해방 전에 발표된 장막극을 중심으로」, 『유치진』(한국극예술학회 편, 극작가총서 2), 연극과 인간, 2010.

흥미로운 점은 각 민족이 조선인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입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작품 속 조선인은 한족의 계층과 신분 - 지주, 농민, 상인, 동북군 등 - 에 따라 그들과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인 만주족, 몽고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흑룡강>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만주/만주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희곡 중에서 조선인과 여러 민족의 관계, 특히 오족의 관계를 한 텍스트에 그려낸 작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흑룡강>에 부각된 여러 민족의 관계는 상당히 주목된다. 그렇다면 작품 속 조선인은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민족협화'는 과연 유치진의 창작의도대로 구현되었을까? 그리고 그 '민족협화'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협화'일까? 본고는 <흑룡강>에 구현된 민족 관계와 각 민족 간 상호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유치진이 의도했던 '민족협화'의 균열을 포착함과 동시에 그 균열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조선인과 만·몽 소수민족의 '협화'적 공존

1940년에 유치진은 3개월 동안 만주 노야령(老爺嶺·현 흑룡강 동남부에 위치)에 체류한 바 있는데, <흑룡강>은 바로 그때의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¹⁶⁾ 유치진은 '오족협화'라는 '만주건국의 이념'이 정치적 구호처럼 생경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창작했으며 이 점은 「國民演劇의 具象化 문제 - 黑龍江 上演에 際하여」¹⁷⁾라는 글에서 잘 나타난다. 이 글에 따르면 유치진은 “리알을 기반으로” “만주 여러 민족이 고투”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이념”에 다가감으로써 관념적인 이념 선전을 피하고자 했다. 물론 송영의 평가대로 ‘작품의 결말이 기계적’¹⁸⁾으로 맺어지

16) 「흑룡강」 공연 보고, 『삼천리』, 1940.7.24, 24~25쪽. (이상우, 위의 글, 147쪽에서 재인용)

17) 유치진, 「國民演劇의 具象化 문제 - 黑龍江 上演에 際하여」, 『매일신보』, 1941.6.5, 4쪽.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만주에 대한 고이남과 조선인 성천의 인식이 다. 곧 '만주국'이 세워지고 '선통제가 임금이 된다는 성천의 말에 고이남은 '만주의 주인이 만주로 돌아온다', '선통제는 저와 같은 만주족'이라며 '만주가 만주족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한다. 즉 만주에 대한 고이남의 주인의식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성천은 고이남의 이러한 의식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만주의 주인은 만주족'이라며 격하게 동조하는 한편 '우린 나그네'라며 조선인을 만주의 이방인으로 인식한다. 이는 사실상 만주족 외의 재만 기타 민족을 모두 '만주의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의 시대의식에 반하는 이 '위태로운 발언'은 '만주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치환됨으로써 '국민연극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모두 만주국 국민'이라는 대사는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앞에서 강조된 '만주 고유의 주인=만주족'이라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무력해지고 만다. 좀 더 나아가 말하자면 영토 - 만주에 대한 강렬하고도 본질적인 역사인식은 오히려 '만주국'의 식민주체인 일본의 침략성을 돌출시키는 효과를 낳고 말았다.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드러나는 '만주국' 주체 민족인 일본에 대한 타자 인식은 이처럼 작품의 첫 대목부터 예고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성천의 대사를 통해 전해지는 조선인과 만주족의 관계이다. '예전에 늘 도와주었듯이 앞으로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성천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주족인 고이남은 사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인들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서 양자의 관계는 조선인 성천이가 고이남을 '노고(老賈)'라고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친밀해졌던 것이다. 사변 이후, 마을로 다시 돌아온 조선인들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족 주민들의 배척을 받을 때에도 고이남은 변치 않고 조선인을 도와주었다. 당시 한족들은 조선인들이 수확한 곡식을 사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곡식도 조선인들에게 팔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이와 같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고이남은 대신 나서서 한족에게 곡식을 팔아 조선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고이남은 마적의 습격 소식을 조선인들에게 알려 제때에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조선인과 지주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고이남의 목적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고이남의 궁극적인 목적이 양자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주의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흑룡강>의 고이남은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의 탄생을 기대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기대감은 오죽이 협화적으로 공존하는 신생 다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이 아닌, 만주족이 다스렸던 ‘청 왕조 복벽’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그 욕망은 고이남이 ‘만주족이 만주의 주인’이라며 은근히 긍지감을 드러낸 부분에서도 표출되었지만 무엇보다 ‘만주국’을 “현대에 부흥된 청나라 낙원”(359)이라고 설명하는 대사를 통해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고이남은 바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를 숨기려는 지주를 향해 ‘선통제가 임금으로 등극’하는 ‘만주국’ 건국을 운운하며 일본군 사에게 반납하고 ‘투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건국의 걸림돌인 동북군 패잔군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와 조선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賈以南 (두 사람이 안 보이기를 기다려서)大人, 大人께서는 이우에 더 테병놈들의 손에 휘둘리고 십습니까? 왜 조선 사람들만 미워하시구 테군을 잡을 생각을 못하세요?

土 豪 무슨 조흔 수가 있니?

賈以南 테군을 잡자문 조선 사람과 짜야 합니다. 때 마츨 테군한테 여서 조선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애요. 그들의 울분은 하늘에 뺨칩니다. 인제는 조선 사람들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 사람들 만 앞장 세우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안코 테군을 잡을 수가 있서요.

土 豪 그만 두게. 손에 무기 하나 없고 게다가 끼니를 굶어서 기진맥진한 놈들하고 짜면 뭘 해?

賈以南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수백만의 일군이 있지 않습니까?
 土 豪 그래 그게 어저탄 말야?
 賈以南 그 군사를 부릅시다. (387쪽)

위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고이남은 지주에게도 미움 받고 패잔군에게마저 쫓겨 다니는 조선인의 처참한 신세를 대신 토로하는 한편 '조선인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라며 지주가 조선인과 협력하여 패잔군을 제거하도록 권유한다. 이때는 패잔군의 습격으로 조선인은 물론 지주마저 집과 아내를 빼앗기고 산속으로 피신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이남의 적극적인 중재는 마치 곤경에 빠진 조선인과 지주를 도와주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선인을 앞장 세워 그 배후에 있는 수백만 일군의 힘'을 빌리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패잔군을 잡을 수 있다는 뒷부분의 대사와 그의 욕망을 결부하여 볼 때, 고이남의 적극적인 중재를 결코 순수하게 볼 수 없다. 그 노력 속에는 조선인과 지주의 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군의 힘을 빌려 반만항일(反滿抗日)세력-패잔군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민족 부흥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속셈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이남의 바람대로 작품의 말미에서 조선인과 지주는 힘을 합쳐 패잔군을 제거함으로써 '만주국' 건국에 일조하게 된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던 조선인이 자의적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이남의 욕망 실현에 지대한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이처럼 <흑룡강>의 조선인과 만주족 고이남은 사심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순수한 관계인 듯 보이다가 고이남의 욕망이 발견되는 순간 그 순수함은 변질되고 만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조선인에 대한 고이남의 인식이 다. '조선사람을 앞장세워 그 배후에 있는 일군의 힘을 빌리면 패잔군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이남은 조선인을 일본의 보호를 받는 민족, 즉 일본의 앞잡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인에 대한 당시 한족들의 인식과 같은 것인데, 다른 점이라면 만주족-고이남은 조선인을 자신의 민족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민족으로 혹은 이용가치가 있는 민족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족은 조선인을 자신들의 민족적 이익에 충돌을 일

으키는 민족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고이남의 이러한 인식은 작품 전반부에서 조선인을 수전에 능한 우수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며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어찌면 그 도움은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동질감에서 기인한 것이며 조선인이 만주족을 ‘만주의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통제가 만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부터 고이남의 민족주의 욕망이 싹틈과 더불어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변질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흑룡강>의 조선인과 만주족의 관계는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 또한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흑룡강>의 조선인과 몽고인은 상부상조하며 함께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부각되었다. 작품에서 조선인의 수전 농사는 몽고인 차리부하의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그려졌다.

① 蒙古人 제발 인젠 이 고장에서 썩나지 말아주우. 물속에 밭 담그고 농사짓다가 몽고 사막에 가서 어찌케 삼니까? 당신네들이 업스니까 난 수전농사 질 엮들 못 내겠읍니다.

賈以南 수전 농사야 조선 사람이 제일이지. 이분들이 업스문 송내두 못 내구 말구. (343쪽)

② 壽 鐵 (麻袋를 내려 노코)지죽맥 서사 나리가 소개를 해줘서 이 차리부하 하라범이 팔아 다우

樸先生 세세, 차리부하

蒙古人 (가만이) 배태(장네)눅는 唐哥 알쥬. 그 자헌테서 팔앗쥬. 조선 사 략허구 거래한다는 게 알리문 동리에서 돌란다구 제발 비밀히 해 달랏디다.

樸先生 동리에서 우릴 여간 미워하질 안는 모양이군요.

蒙古人 걱정마루. 내가 살아 잇잔아요. 당신네들이 이 동리에서 안 살문 죽은 우리 연편네가 울어요. 제사에 쌀밥을 못 어더 먹어서……

(349쪽)

인용문 ②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리부하는 고이남과 함께 조선인들 대신 나서서 곡식을 팔아 주었다. 자칫 일본의 앞잡이 - 조선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본인 역시 중국인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나선 이유는 ①에서 드러나듯이 만주에서의 수전 농사가 그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제발 이 고장에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대목은 몽고인 차리부하가 조선인을 자신의 생명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다음 인용문을 통해 차리부하가 조선인을 진정한 친구로도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梁七山 나한테서 갖이구 간 방청료(農資金) 내나.
 蒙古人 다 써 버렸서.
 梁七山 이 의리 없는 녀석! 나한테서 농사 짓겟다구 돈까지 갖다 쓰구서 내가 미쓰러지니까 쏘 여기 와서부터?
 蒙古人 **임자허군 작년에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나허구 가치 농사짓든 이전 친구야. 이 친구들이 허든 수전을 가로 채선 안 된다구 내가 그래두 임잔 조선 사람들 다 죽었스니 걱정말구 수전 농사 어떻게 짓는지 좀 가르켜 주우? 이리면서 실테두 작구 그 돈을 갖다 맥겠지. 한 푼인들 내가 어디 달랬서?** (365~366쪽, 인용자 강조)

위 인용문은 양칠산이 수전 기술을 익혀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차리부하가 폭로하는 대목인데, 여기서 차리부하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조선인에 대한 의리를 선택했다. 조선인을 배신하고 양칠산과 손을 잡고 수전을 가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이유는 바로 조선인을 진정한 친구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조선인과 차리부하는 함께 수전농사를 지으며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인에 대한 차리부하의 의리로 인해 양칠산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로써 조선인들은 어렵게 개척한 땅을 수호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인에 대한 차

리부하의 의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호만복 일당에게 납치당한 조선인 연이를 보호하고 호만복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조선인들에게 전달 하려던 대목에서도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요컨대, <흑룡강>은 조선인과 소수민족인 만주족, 몽고인의 관계를 비교적 풍부하게 부각시켰다.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엷힌 탓으로 조선인과 만주족이 결코 이상적인(또는 진정한) '민족협화'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남의 땅 - 만주'에서 우호적으로 공존해나가는 조선인과 몽고족은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민족협화'의 관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조선인은 만주족과 몽고족을 긍정적(친구, 이웃)으로 인식했으며 몽고족 역시 조선인을 긍정적(생명선, 친구)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만주족은 조선인을 이중적으로 즉 긍정적(수전기술에 강한 능력자, 친구)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치적 욕망의 개입에 따라 부정적(일본의 '앞잡이')으로도 인식했다.

3. 조선인과 중국인의 협화·비협화적 공존

1) 조선인과 한족 지주의 유동적인 관계와 상호 인식

<흑룡강>에 등장하는 한족은 지주 장거강과 그의 서사(書司) 당을진(唐乙珍), 마을 사람들로 등장하는 농민들, 그리고 아편장사꾼 양칠산(梁七山)과 만인장사치 등이다. 본고는 주로 건국 직전의 조선인들이 만주 농촌의 중요한 두 계층인 지주, 농민과 맺는 관계 및 그들 간의 상호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장거강과 조선인은 지주와 소작농으로 일종의 생산관계를 맺고 있는데, 만주사변 이전 이들의 관계는 마치 가족과도 같이 화목한 사이였다. 이는 토지계약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성천과 장거강의 언쟁을 통해 알 수 있다.

- 星 天 **우리를 친자식같이 봐주시든 대인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이 우릴 배반해두 지동[地主]만은 그러치 안호실 줄 알았서요.**
- 土 豪 나는 언제든지 약한 자의 편이다. 十년 전에 자네들이 의지가 지혈 길이 없어서 수 十명 식구를 거느리구 나를 찾아 여길 올 썬 생각해 보게. 그썬 자네들은 목자없는 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네들한테 쌍을 빌려준다 종자를 해댄다 양식을 꾸어준다, 나는 내 힘껏 해주었어, 그나 그 뿐이나, 자네들이 마적한테 약탈을 당할 썬 말할 것 두 없구 공산당이니 독립군이니 허구 거짓탈을 쓴 도적이 못살게 굴 썬애두 나는 자네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자네들의 살길을 열어 주었다 단 말야.**
- 星 天 저이두 사람이예요. 저이들은 大人 썬 대헌 그 의리만을 직혀 왔습 니다.
- 土 豪 사변 전에는 사실 자네들은 의리 잇는 사내였서. 나두 그 의리에 감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야. 허지만 지금에 와서 자네들의 그 태도는 뭐야? (361쪽, 인용자강조)

위의 대화에 의하면 지주는 조선의 이주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종자도 구해주며 만주에서 수전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적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그야말로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다. 즉 조선인들이 만주의 농촌에 정착하는 데 지주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인들 역시 그런 지주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 왔다. 이처럼 만주사변 이전에 조선인과 지주는 수직적인 생산관계 속에서도 서로 인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냈다.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 조선인들이 동북군에 쫓겨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조선인들은 '친일민족'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그 와중에 양철산이 사변 당시 조선인들이 동북군의 은신처를 일본군에게 밀고했다며 지주에게 고발하고 성천이가 '조선인을 잘 보살펴 주라'는 일본 영사관의 편지를 지주에게 전달하면서 조선인과 지주의 관계는 크게 틀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성천이는

‘동방’이라는 보다 큰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며 화목하게 지낼 것을 호소해 보지만 오히려 지주의 반감을 사고 만다. 지주는 “아모리 천하가 곤두서두 장작림은 내 친구요, 난 장학량 편이다. 장학량을 몰아내친 자와 부동허는 자네들은 내 원수요”(362쪽)라며 장학량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편 조선인을 ‘장학량을 몰아내친 자-일본’과 한통속으로 간주하며 원수로 못 박는다. 요컨대, 이 대목은 만주사변 전후, 서로 다른 조선인과 한족 지주의 민족 관계 및 상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사변을 계기로 이들의 관계는 친부모자식 과도 같은 화목한 사이로부터 서로 의리를 저버린 원수 사이로 변화했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부터 부정적으로 급변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만복의 마을 습격 및 지주 아내의 납치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된다. 호만복은 장학량이 이끌던 동북군 퇴군의 두목으로 마을을 습격하여 조선인은 물론 지주의 재물과 아내마저 빼앗아간다. 겨우 산 속으로 피신하여 아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지주는 하녀로부터 아내를 납치해간 인물이 장학량의 부하 호만복임을 알고 격분해한다.

土 豪 듯고 보니 생각난 일이 있다. 그 녀석이 우리 집엘 몇 번 놀러 온 적이 잇섯서, 음 내가 의심한 게 마젓구나. 적실이 이것들이 내 눈을 속이구 내통헌 게다. 아 내가 가장 존경하는 張學良의 부하가 내가 금이야 옥이야 애끼는 녀편네를……세상이 이러케두 원통헌 일이 잇슬까? 아 분해라. …(중략)… **내 마즈막 명줄은 끈허졌다. 柁月이와 張學良 軍벌은 이 어두운 마주 벌에서는 내 생활의 유일의 등불이였다. 헌데 이게 뭐야? 내겐 아무 것두 업서졌다. 불들레야 불들게 없어졌서. …(중략)…**

星 天 우리와 생사를 가치 하시렵니까?

土 豪 이 쌍에 최악의 씨를 모조리 못지를 수만 잇다면 내게는 柁月이만 이 인젠 문제가 아니다. …(중략)…

土 豪 나를 막지 말어라. 나는 오랫동안 헤매다가 인제야 겨우 내 갈 길을

찾았다.

(399~400쪽)

호만복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과거 몸담았던 조직을 '만주의 유일한 등불'로 간주했던 지주의 믿음은 철저히 깨지게 되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지주는 결국 조선인들과 손을 잡고 아내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다소 충동적이고 갑작스러운 전개로 극작술이 문제시되는 대목이지만 조직에 대한 지주의 믿음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감안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지주는 조선인과 힘을 합쳐 호만복 일당을 제거하고 건국을 맞이한다. 이로써 사변 이후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했던 조선인과 지주는 호만복의 출현으로 협력적인 사이로 급변한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은 결과적으로 호만복을 제거하고 '만주국' 건국에 일조하게 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지주의 협력 목적이 결코 '만주국' 건국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위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지만 지주의 목적은 철저히 믿었던 조직에 대한 배신감 및 그에 대한 복수심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조선인과 협력하여 반만항일세력인 호만복을 제거하고 '만주국' 건국에 일조했다고 하여 지주가 강조한 '내 갈 길'을 '만주국' 건국을 옹호하는 길 내지 친일의 길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비약적이다. "내게는 동월이 만이 인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나 조선인과의 협력 동기 등과 연결하여 볼 때, 그가 강조한 길은 사랑하는 아내 동월 즉 가족을 수호하는 길로 이해하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흑룡강>의 조선인과 지주는 친부모자식과 같은 화목한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원수와도 같은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가 또다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갔다. 처음에는 수전을 통한 양자의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 대한 양자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됨과 동시에 만주 땅에 대한 조선인의 잠식을 위협적으로 감지하는 순간 양자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다 조선인의 생존권익 쟁취와 지주의 정치적 신념의 붕괴 및 가족 수호의 의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악화되었던 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조선인과 지주의 정치·경제·민족적 이익 득실은 이들의 관계 형성과 변화에 작동되었던 주요 메커니즘

이었다. 조선인과 지주의 상호 인식 또한 양자의 관계 변화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움직였다. 조선인은 지주를 만주 정착을 도와준 은인으로부터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로, 또다시 함께 적을 제거한 협력자로 인식했다. 반면 지주는 조선인을 경제적 생산자로부터 정치·민족적 '반역자'로, 또다시 협력자로 간주했다.

〈흑룡강〉에 부각된 조선인과 한족 지주의 이와 같은 유동적인 관계와 상호 인식은 당시 만주 농촌의 실제 상황이었다. 윤희탁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 한족 지주들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경제적 수익을 높여 줄 때에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조선인의 정착을 돕고 민족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비교적 협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지타산이 맞으면 다시 땅을 회수하여 직접 농사를 짓거나 중국인 농민에게 소작을 주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결국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조선인은 한족 지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²⁰⁾ 〈흑룡강〉은 지주 장거강과 조선인들의 관계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 이념을 반영하되 사실에 기반하여 그 이념을 점차적으로 드러내야 한다'²¹⁾고 강조했던 〈흑룡강〉 및 국민연극에 대한 유치진의 구상이 일정하게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주를 설득하고자 목소리를 높인 성천의 관념적인 대사가 보여주듯이 유치진의 〈흑룡강〉은 결코 프로파간다극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2) 조선인과 기타 한족의 적대적 관계

〈흑룡강〉에서 지주 외에 등장하는 한족은 주로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협잡꾼 양철산과 호만복 및 조선인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사람들'(이하 '한족들'

20) 윤희탁, 「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295~296쪽.

21) 「上海·京城兩地'藝術家交驛'座談會」, 『삼천리』 제9호, 1941년 09월 01일.

로 지칭)이다. 이들은 조선인과 시종일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 작품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인과 한족들의 관계이다. 이들의 적대적인 관계 역시 정치·경제·민족적 이익의 충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족들에게 있어 조선인은 만주를 침략한 일본에 '협력적인' 민족인 동시에 언젠가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위협적인 민족이었다. 작품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둘러싸고 양자의 갈등을 전개했다.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간주하며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내용은 작품 전반부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었다. 마을의 한족들이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 작품이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만주사변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조선인들이 한족들에게 배척당하고 봉변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대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그 밖에 다소 민감한 '만보산사건'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밀고 소문(사변 당시 동북군의 거처를 일본군에게 밀고했다는 소문)을 간접적인 이유로 언급했다. 조선인을 적대시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은 두 대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이웃女子 다섯 그릇만 주우.(하면서 돈을 내준다. 徐氏도 돈을 쓰으려내서 손에 든다)

滿人장사치 (돈을 바드려 하지 안코 이웃 女子와 徐氏를 홀터 보고는)꺼우리

이웃女子 아이 이 녀석 보게

星 天 이 녀석!

滿人장사치 에 더러워(하면서 성천 앞에 침을 뱉는다) ……(중략)…

星 天 웨 욕을 허느냐 말야?

滿人장사치 너이들이 개노릇을 허니까 그러치 뭐

星 天 개?

滿人장사치 너이들 할빈 일본 령사관에 잇잔엇서? 거기서 밥 어더 먹구 돈 어더 지? 금방 그 돈이 바로 그 돈 안야. 그런 돈을 썩썩스럽게두 남의 압해 내놔?
(347쪽, 인용자 강조)

吉 甫 우릴 일본 령사관에 잇다가 왔다가 온 동리가 들구 일어나서 지랄이
라우.

樸先生 여기보다두 거긴 더 심하군 그래.

吉 甫 씩헌 소리지. 우리더러 몇 십 년 해먹은 농토를 두고 나가라니 어딜
가나 갈 데가 잇서야 가죠. 그래 죽엇스면 죽엇지 이 만주 쌍에선
비켜서진 못하겠다구 베텐지요. 그랬더니 총썰리로 우리 형님의 양
기슴백이를 사정업시 칩니다 그려. 단번에 폭 쓰러 죠. 말마세요.
입에서 싹썰건 피가 흐르는데 에이 참 아즉두 피가 묻엇군 그래.

(351쪽, 인용자 강조)

위 두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족들은 조선인들이 일본 영사관의 보
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음식을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휘
둘러 몇 십 년간 가꾼 터전에서 무자비하게 쫓아내기까지 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양자는 서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서로를 ‘꺼우
리’, ‘개’, ‘테놈’이라 폄하는 용어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 밖에 땅 문제를 둘러
싼 한족들의 위기의식은 조선인이 개척한 땅을 빼앗으려는 양철산의 심리
와 고이남의 대사를 통해 대변되었다.

梁七山 놈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지낸 란리에 雙城堡에서 쫓겨온 東北軍이
여기 숨어 있는 줄을 일군이 어찌케 알앗겠수. 조선 놈들이 다 가르
려 준거예요. 그래서 전멸을 당한 겁니다. 대체 농민이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예요. 군대는 전장만 쫓나문 본국으로 다 돌아가
지만 농민이란 소진득이 모양으로 쌍에 부터서 끝까지 쌍기운을
뺏아먹거든요. 우린 어찌케 해서라두 조선 농민을 이 쌍에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합니다. 이 주테에다가 大人께서 도장만 하난 찍어
주세요. 그러문 이걸 핑계루 난 놈들을 다 쪼차낼 테예요.

土 豪 조선 놈을 몰아내치구 자네가 수전농살 지어 보겠단 말이지?

梁七山 네. 그러습니다. 조선 사람이 허는 걸 우리 漢族이 왜 못 한단 말예요.

土 豪 새 주테를 땀글 게 없어. 줌 기다리게. 조선 농민을 불러서 그자들
에게 내가 해준 土地使用契約書를 도로 빼아서 줌세.

(360쪽, 인용자 강조)

위 인용문은 양철산이 지주와 조선인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대목인데, 여기서 양철산은 지주가 조선인에 대한 의리를 깨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피력하고 있다. 하나는 사변 당시 조선인들이 동북군의 은신처를 일본군에게 밀고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조선인들이 한족들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조선 사람을 그냥 두면 작구 몰려 들어와서 한전이 수전이 급기야는 만인이 다 -내쪽이고 만다고. 그래서 온 동리가 디집혀서 조선 사람을 잡으려 든다”(387쪽)는 마을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고이남의 대사를 통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흑룡강>은 조선인에 대한 한족들의 이러한 인식을 두 민족 갈등의 요인이자 조선인들이 수난을 겪는 요인임을 강조하여 표현했다. 특히 땅 문제는 ‘만주국’ 건국 전후 한족과 조선인 농민 간의 중요한 갈등이었다. 실제로 당시 한족 농민들은 만주 농촌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농업 경쟁자’ 내지 ‘침입자’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두 민족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지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다.²²⁾ <흑룡강>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이는 유치진의 만주 농촌 체험과 리얼리티를 중요시했던 그의 연극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진은 지주와의 갈등과 달리 조선인과 한족들의 갈등은 봉합하지 않은 채 시종 적대적/비협화적인 관계로 처리했다. 이는 <흑룡강>을 통해 ‘민족 상극에서 민족협화로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던 유치진의 창작의도를 고려할 때, 분명 균열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흥미롭고도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마지막 장에서 보다 소상히 논의하기로 한다.

22) 윤취탁, 위의 글, 297~298쪽.

4. 타자화 된 제국 일본

〈흑룡강〉의 일본과 각 민족의 관계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진다. 작품 전반부(1~3막)에 일본영사관에 얽힌 내용이 그려지는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지만 조선인과 일본, 한족과 중국인 및 한족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우선 작품 속 일본영사관과 일본군인은 동북군에 쫓기는 조선인을 보호해주고 호만복의 피습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조선인의 든든한 배후 세력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보호자’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아래 두 인용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① 樸大奎 (星天 앞에 닳아 서며) 여보, 그 정말유?
 星天 **령사관은 우리의 은인유**, 우리가 張學良의 군사한테 쪽여 단일 때 마춤 할빈령사관에 수용이 뗏셋기에 망정이지 그러치 안헛스문 세죽업헛쥬.
 樸大奎 에이 더러운!(하면서 星天을 한 대 갈긴다 星天은 더 反抗치 못하고 쓸어진다)
 滿人장사치 (웃으며 나간다)
 樸大奎 (가지고 왔던 보통이를 도로 들고) 그 썩은 오장으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347쪽)

- ② 賈以南 여러분 이러케 고생하지 말고 군대를 부릅시다. …(중략)…
 壽鐵 **우리의 분한 것을 두고 말하자면 단박에 군대를 불러서 묻지르고 심소** 허지만 그 뒤가 무섭소. 지낸 사변 **제만 해도 이 쟁에** 군대가 들어온 것은 우리의 농간이라고 동리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양식까지도 안 팔지 안헛소. 이런 후환을 쯤 어찌 격는단 말요. 미우나 고우나 이 **쟁이** 아니면 우리는 발을 부치고 살 때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대로 견디시오. 령사관에서도 견디는 사람이 최후에 익이는 사람이라 했시오. (397쪽, 인용자 강조)

인용문 ①은 사변 때, 성천과 마을의 조선인들이 일본영사관의 보호로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마을의 조선인 박대규가 분개하며 짐을 들고 나가는 대목이다. 박대규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장학량 부하인 호만복 패잔군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 조선을 침탈한 일본에 대한 원한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을 은인으로 간주하는 주인공 성천과 달리 박대규는 일본을 원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결말부분에서 박대규가 호만복의 만행에 자신의 경솔함을 깨우치며 결국 성천을 돕지만 이를 일본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와 일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죄 없는 백성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호만복 패잔군의 만행을 '죄악'으로 강조하는 박대규의 태도는 오히려 조선을 침탈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완곡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호만복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본군을 부르자는 고이남의 제안을 거절하는 수철의 태도 - 인용문 ②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변을 겪으면서 일본과 조선인에 대한 한족들의 입장을 확인가게 된 수철은 일본군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한족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악화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어 그는 만주에 정착하려면 조선인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피력한다. 이는 만주/만주국에서 조선인들이 생존권을 획득하려면 한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역으로 해석하자면 수철이 일본을 조선인과 한족의 협화적인 민족관계를 위협 내지 파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말하자면 '민족협화'의 기치를 내걸고 '만주국'을 건립한 제국 일본을 오히려 그 협화적 기치에 금을 내는 '파괴자'로 타자화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흑룡강> 조선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주변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되었다면 한족들의 일본 인식(부정적)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

렬하게 표출되었다. <흑룡강>은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간주하는 한족들의 인식을 강조하여 표현했는데, 이는 곧 일본에 대한 한족들의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품은 지주 장거강의 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러한 심리를 직접적이고도 강렬하게 드러냈다.

土 豪 (혼자 생각하며)이 사람 생각해보게. **태군도 내 원수지만 조선 놈들도 내 원수가 아닌가? 지금은 온 동리가 들고 이러니서 조선 놈들 잡으려 하는데 나로서 그 원수의 손을 빌려 원수를 갚혀? 그것은 비겁한 일이다. 내 손으로 그런 짓은 못하겠다. …(중략)…**

土 豪 나는 그 같은 장수가 아닐세. 내가 애초에 張作霖이와 의견이 틀려서 서로 헤어진 것도 내 성미에 그런 리의에 어그러지는 것을 못했기 때문이었서. 그래서 나만이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예비가 되구 말었네. **나는 내 마즈막 피를 흘리드래도 결백하게 죽고 싶으이.**

賈以南 그러면 할 수 없죠. 조선 사람은 보내버리죠.

土 豪 그래라. **어쨌케 해서라도 난 내 마누라를 찾구 그리구 태군을 개유 시켜서 장사령의 부하로서 일본에 대항할 힘을 길우겠서.**

(388쪽, 인용자 강조)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지주와 마을의 한족들은 조선인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죽어도 결백하게 죽고 싶다’, ‘장사령의 부하로서 일본에 대항할 힘을 기르겠다’는 지주의 심리는 곧 민족의 원수인 일본군의 손을 빌려 개인적인 원한을 갚음으로써 민족의 죄인-‘한간’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항일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건국공신’인 성천이가 건국 맹세를 하고 일장기와 오색기가 휘날리는 순간에도 지주는 “동월이를 다리고 행복스럽게 성천의 말을 듣고 섰”(416쪽)을 뿐 그의 맹세에 동조하지 않는다. ‘행복스러운’ 그의 표정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 아내를 구해낸 사실에 대한 희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만주사변 이후부터

‘만주국’ 건국에 이르는 과정까지 일본은 후경화 되었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인과 한족들의 대사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강렬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만주국’ 오족협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일본은 <흑룡강>에서 그 중심을 잃고 오히려 각 민족 간의 협화적인 공존을 위협하는 존재이자 기타 민족이 경계하는 대상으로 타자화되었다. 유치진의 창작의도는 여기서 또 한 번 균열을 드러낸다.

5. 체화하지 못한 식민 논리 - ‘민족협화’

<흑룡강>을 통해 ‘민족상극에서 민족협화’로 나아가는 ‘만주국’의 건국이념과 대동아건설의 이상을 체현하고자 했던 유치진의 창작의도는 조선인과 지주의 갈등 및 ‘화합’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되었다. 그 밖에 조선인과 마을의 한족 및 한족과 일본(인)은 ‘상극’으로, 조선인과 만주족, 몽고족은 비교적 ‘협화’적인 관계로, 일본과 조선인은 ‘협화’적인 듯 보이지만 한쪽(조선인)이 다른 한쪽을 ‘경계’(일본)하는 이중적인 관계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유치진이 핵심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민족협화’는 모든 민족 관계를 통해 균일하게 체현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균열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본고는 아래와 같이 풀이해보고자 한다.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흑룡강>은 조선인을 비롯한 각 민족이 ‘만주국’ 건국에 협력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다음, 이 큰 틀을 채우며 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각 민족 간의 관계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재만 조선인과 지주 및 기타 한족들의 갈등 관계이다. 또한 그 갈등 관계 안에서 작품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인들의 만주 개척과 생존권이다. 이를테면 작품은 ‘조선인이 흑룡강 연안을 문전옥답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주가 이 땅의 아버지라면 조선인은 그 땅의 어머니이다’(350쪽, 성천), ‘몇 십 년 해먹은 농토를 두고 절대 만주 땅을 떠

날 수 없다’(351쪽, 길보), ‘만주 땅이 아니면 조선인은 발붙일 곳이 없다.’(396쪽, 수철), ‘만주 땅에서 목숨을 잃은 수천수만의 조선인을 위해서라도 만주 땅을 지켜야 한다’(396쪽, 학창) 라며 만주 개척의 일등공신으로서의 재만 조선인의 생존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성천은 토지계약서를 빼앗으려는 지주에게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조선인들의 개척 공로와 더불어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바로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민족협화’와 일제의 ‘대동아건설의 이상’이었다. 즉 만주 개척과 ‘민족협화’, ‘대동아건설의 이상’ 등은 성천을 비롯한 재만 조선인들이 당당하게 만주/만주국’에서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자 명분이었다. <흑룡강>은 또한 생존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쟁취하는 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족협화’ 및 ‘대동아건설의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아래 성천의 격정적인 호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星 天 大人, 목전의 일만 생각지 마시구 널리 천하 대세를 살펴보세요. 하로 밧비 일어서서 東方 사람의 힘으로 이 東方을 직혀야 합니다. 그러해질 못 허문 만주구 대국이구 일본이구 헐 것 업습니다. 한꺼번에 다 망하구 맙니다. 우리는 北으로 저 우랄 山脈에 萬裏長城을 써꾸 남으로 자바島에다가 봉화 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各 民族이 화목허구 밖으로 도적을 막아야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 만주 두 맘 노쿠 사람 사는 나라가 될 꺼예요.

土 豪 그게 무슨 잠고대람.

星 天 잠고맬는지 모르지요, 허지만 그러케 허지 안문 우린 못 삼니다. 大人께서도 진실로 만주를 사랑힐 랑이문 먼저 제 뜻에 찬동해 주세요. 우린 여태꺼정 만주에선 방황히는 양이였셔요. 하지만 인젠 제 갈 길을 붓들엇습니다.

土 豪 (大笑한다) 하하하……갈 길을 붓들어? 맘대루 붓들구 느러지게. 허지만 아모리 천하가 끈두셔두 張作霖은 내 친구요, 난 張學良 편이다. 張學良을 몰아내친 자와 부동허는 자네들은 내 원수요, 잔소

리 말구 내가 해 준 주테나 도로 내노케.

(361~362쪽, 인용자 강조)

위 인용문에서 성천이는 “동방 사람의 힘으로 이 동방을 직히야” 비로소 만주와 일본 등 동방의 각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민족이 화목허구 밖으로 도적을 막아야” 할 것임을 지주에게 피력하고 있다. 일제 말기 제국 일본의 정치적 이념을 상기할 때, 성천이가 부르짖는 ‘동방 수호’는 곧 ‘대동아공영’과 연결되며 ‘도적을 막는 것’은 곧 ‘영미 귀족’과 연결된다. 따라서 성천의 연설은 곧 ‘대동아공영’을 위해 만주의 각 민족이 협화적으로 공존하며 적군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곧 <흑룡강>의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연설이 잠꼬대라는 지주의 말에 “그러케 허지 안문 우린 못 삼니다.”, “우린 여태꺼정 이 만주에선 방황허는 양이였서요. 허지만 인젠 제 갈 길을 붓들엇습니다”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응하는 성천의 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의미인즉 ‘여러 민족이 협화적으로 공존하며 동방을 수호하지 않으면 - 대동아공영을 위하지 않으면 우리 - 만주의 조선인은 살지 못할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인젠 제 갈길 - 민족협화 및 대동아공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재만 조선인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민족협화’와 ‘대동아공영’이라는 일제의 정치적 이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인공 성천을 비롯한 조선인이 지주를 설득하여 함께 ‘만주국’ 건국에 협력한 것 역시 이러한 목적과 연관된다. 요컨대, <흑룡강>은 재만 조선인의 생존 이익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만주국’ 건국 협력 및 ‘민족협화’와 ‘대동아공영’에 대한 추구를 재만 조선인의 생존권 쟁취 방법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민족 간의 갈등 해결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작품은 조선인이 한족, 만주족, 몽고족 및 일본과 맺는 관계를 하나 하나 보여주었다. 그 중, 민족 갈등과 관련하여 작품이 직/간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 한족과 일본 및 조선인과 한족, 이 세 민족

의 상호 관계이다. 또한 재만 조선인의 생존권 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흑룡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인과 한족의 갈등이다. <흑룡강>은 이들의 갈등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다. 전자는 조선인들이 만주 땅을 수전으로 모두 잠식할 것이라는 한족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작품은 이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에서 조선인들의 만주 개척을 운운하며 생존권을 강하게 주장했을 뿐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흑룡강>은 재만 조선인들이 현실적으로 한족들의 배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의 '무기'이자 양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장 받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만주 개척의 공로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는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갈등 해결로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창작의도에 균열을 드러내고 말았다.

한편 일본을 둘러싼 조선인과 한족들의 갈등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한족과 일본의 원한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된 한족과 일본의 원한 관계는 일본의 만주 점령을 계기로 더욱 깊이 발효되었으며 이는 <흑룡강>의 한족들, 특히 지주 장거강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한족들이 조선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선인이 원수वाद 같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흑룡강>은 시종일관 이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조선인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작품은 재만 조선인들이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한족들과의 갈등을 완화할 것을 암시했다. 이처럼 유치진은 한족과 일본을 시종 원수 관계로 각인시킴과 동시에 조선인과 일본 또한 완전히 '협화적'이지만은 않은 사이로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창작의도에 또 하나의 균열을 가했다. 본고는 이 역시 유치진이 재만 조선인들의 생존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본다.

요컨대, <흑룡강>은 재만 조선인을 만주 개척 및 '만주국' 건국의 공로자로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이 만주/만주국에서 충분히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이른바 재만 조선인의 정당한 생존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방법인즉 일제의 정치이념인 '민족협화', 나아가 '대동아 공영'을 추구하고 동시에 '만주국' 다수의 민족인 한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작품은 또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만 조선인들이 만주 개척 및 '건국 협력'을 근거로 생존권을 주장할 것을 강조한 한편 일본을 경계할 것을 암시했다. 한마디로 유치진이 <흑룡강>을 통해 체현하고 있는 '민족협화'는 조선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협화'로 귀결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치진(<흑룡강>)이 어디까지나 '만주국' 및 '대동아 건설의 이상'이라는 일제의 식민논리 속에서 재만 조선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흑룡강>의 '민족협화'는 일정한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만주국' 건국 9년 뒤인 1941년에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균열은 곧 '만주국'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즉 '만주국'의 허상을 간접적으로 비춘 셈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논리에 부풀었던 유치진의 이상이 국민연극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괴리감과 같은 것이었다. 문경연은 <북진대> 공연 이후, 유치진이 국민연극에 회의를 느낌과 동시에 <대추나무>를 끝으로 해방 전까지 더 이상 창작을 이어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치진이 "국민연극의 논리에는 경도되었지만 그것의 예술적 성취에는 의심"했으며 "이 의심은 제국의 담론이자 자신의 신념에 균열을 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²³⁾ 본고는 이 모든 균열이나 괴리감이 결국 유치진이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 조선인 또는 재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일제의 식민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환언하자면 일제의 식민논리를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채, 국민연극을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을 통해 유치진이 상상했던 '대동아공영' 역시 조선인의 이익을 우위로 고려한 '공영'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주인공 성천의 호소로부터 볼 때, 이 관점이 유치진의 '대동아공영' 상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23) 문경연, 위의 글, 65쪽.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재명 외 편, 『해방전공연희곡집(1940~1945)』, 평민사, 2004의 별쇄본, 『유치진 희곡』.
「劇團“滿洲”地方公演 마치고 歸京」, 『만선일보』, 1941.12.9, 3쪽.
「문화운동의 봉화, 본사 상해지국 후원 하 공연 - 상해문화동호회 유치진 작 흑룡강 공연」, 『만선일보』, 1942.3.8.
「上海에 朝鮮人으로 組織된 「上海劇藝術研究會」創立」, 『삼천리』 1941년 9월호.
「上海·京城兩地藝術家交驛座談會」, 『삼천리』 제 9호, 1941년 09월 01일.
김시량, 「〈흑룡강〉을 보고 - 현대극장 창립공연평」, 『매일신보』, 1941.6.10.
박영호, 「〈흑룡강〉의 인상① - 현대극장 창립공연평」, 『매일신보』, 1941.6.11.
송영, 「국민극의 창작」, 『매일신보』, 1942.1.15~20.
유치진, 「國民演劇의 具象化 문제 - 黑龍江 上演에 際하여」, 『매일신보』, 1941.6.5, 4쪽.
鹹大勳, 「國民演劇의 첫 烽火 - 劇團現代劇場創立에 際하여」(上), 『매일신보』, 1941.3.3, 4쪽.

2. 논문 및 단행본

-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김재석, 「〈흑룡강〉에 나타난 계몽선전의 기법과 작가적 의미」, 『한국연극학의 위상』, 태학사, 2002.
문경연, 「1940년대 국민연극과 친일협력의 논리 : 유치진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29, 한국드라마학회, 2008.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윤휘탁, 「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이상우, 「일제 말기 유치진의 만주 체험과 친일극」, 『근대극의 풍경』, 연극과 인간, 2004.
이재명, 「유치진 희곡의 인물형상화 연구 - 해방 전에 발표한 장막극을 중심으로」, 『유치진』(한국극예술학회 편, 극작가총서 2), 연극과 인간, 2010.
_____, 『일제 말 친일 목적극의 형성과 전개』, 소명출판, 2011.

Yu Chijin's <Heirongjiang> - Implication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Its Rupture*

LI · FUSHI**

Yu Chijin's play <Heirongjiang> depicts the birth of 'Manchukuo'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peoples including the Koreans, and in this process, describ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oreans and such diverse peoples as Chinese, Manchurians, Mongolians and Japanese. Furthermore, the play tries to inspire 'National Reconciliation' or the founding ideal of 'Manchukuo'. In the novel, the Koreans have formed multi-layered relationships with the Chinese of various social statuses such as land owners, farmers, merchants and Northeast China Army soldiers, while being closely related with such minority peoples as Manchurians, Mongolians and Japanes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Yu Chijin's view of the rupture of 'National Reconciliation', noting such inter-people relations and mutual perception, and thereb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such a rupture.

The novel 'Heirongjiang' emphasizes that the Koreans residing in Manchu were the people of merit in the development of Manchu and foundation of 'Manchukuo' and thereby, contends that the Koreans residing in Manchu should have the sufficient rights to live in Manchu/Manchukuo, and then, suggests the ways to secure such rights. The ways he suggests should be pursuit of Japanese political ideologies 'National Reconciliation' and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and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the majority people of Manchukuo or Chinese. Besides, the play argues that in order to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OLU-2250001)

** Researcher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ina Maritime University

resolve the conflicts, the Koreans should insist on their rights to life based on their merits of developing Manchuria and ‘cooperation for the foundation of Manchukuo, while hinting that the Koreans should caution themselves against the Japanese. In short,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hampioned by Yu Chijin through this play would well lead toward ‘the reconciliation’ centered about Korean’s benefit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play is that Yu Chijin (‘Heirongjiang’) emphasizes the benefits of the Koreans residing in Manchu taking advantage of the Japanese colonial logics or ‘Manchukuo’ and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Hence,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ld not but expose a crack if the Koreans’ benefits should not be warranted. Since this play was performed in 1941 or 9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Manchukuo, such a rupture would indirectly suggest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of Manchukuo or the illusion of Manchukuo. Such a gap would be the rupture of author’s ideal in the process of the specific practice or the national drama. All such ruptures or sense of gap would result from his accommod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logic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residing in the peninsula or Manchu. In other words, he practiced the national drama, while not completely internalizing Japanese colonial logic.

Key words: Yu Chijin, Heilongjiang, Manchu, National Reconciliation,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